

## 목마른 사마리아인들의 세계에는 욕망과 자살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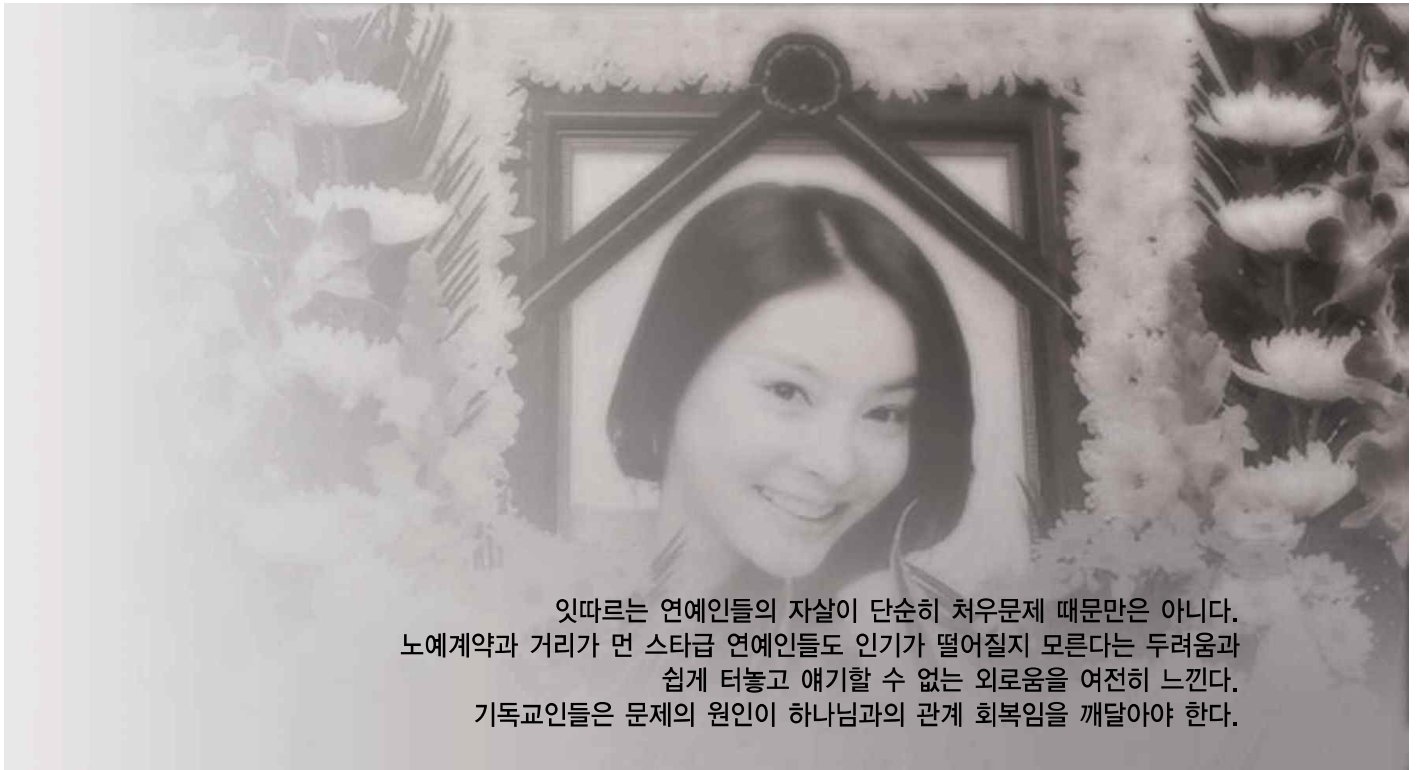


노은혜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 중기과정 1기, 연세대 언론홍보/영어영문과 4년

지난 7일 신인 탤런트 장자연씨가 자살한 이후, 장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술 자리 접대, 성 상납 등을 강요 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소속사와 매니저에게 착취당하는 신인 연예인의 고통이 표면화되고, 문건을 둘러싼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술대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몇몇 인사들의 리스트가 진실인지 아닌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많은 대중들은 관련된 진실을 원하고 있는데, 경찰은 문건의 사실 여부와 그 안의 인물들의 이름이 확실하다 않다며 수사를 늦추고 있다. 사건의 진실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당사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지금, 진실이 밝혀질 지 의문이다.

이번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목마른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장씨는 연예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만, 모욕당한 자존심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외롭고 힘 없는 존재였다.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는 돈이라는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인간의 존엄성을 소홀히 여겼고 그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문건에 등장하는 인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사는 비인간성을 보여줬고,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공개될까 노심초사한다. 사건을 지켜보는 대중들은 진실에 목말라 연신 인터넷을 두드리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찾아 헤맨다. 모두 세상 속에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자신들의 욕망, 목마름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물을 길으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 그리고 물으신다. “네 남편은 어디 있느냐?” 다섯 번 결혼과 헤어짐을 경험한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다. 예수님은 여인의 상황과 목마름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녀 스스로 그 목마름이 세상으로 채워질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처럼, 인간은 혼자서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이를 채우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 부족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4).” 즉,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빈 가슴을 채우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발버둥친다.



잇따르는 연예인들의 자살이 단순히 처우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노예계약과 거리가 먼 스타급 연예인들도 인기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외로움을 여전히 느낀다.  
기독교인들은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준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것이다. 돈, 명예, 권력, 인기, 가십거리가 되는 거짓 정보들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다.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오는 목마름인데도, 아무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언론과 경찰, 유가족도 고인의 외로움보다는 리스트의 이름을 공개하고, 심판하는 데에만 초점을 둔다. 문건의 사실 여부가 경찰을 통해 밝혀진다면, 앞으로 신인 연예인들의 계약 조건과 처우는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잇따르는 연예인들의 자살이 단순히 처우문제 때문은 아니다. 노예계약과 거리가 먼 스타급 연예인들도 인기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외로움을 여전히 느낀다. 기독교인들은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깨달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인터넷 앞에서 리스트에 오른 인사가 누구인지 검색하는데 동조하기보다, 직장 가운데 메말라있는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영생의 물을 제시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두 손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 이 글은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에서 매주 진행되는 시사문화QT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시사문화QT란 한 주간 동안 화제가 되었던 사회의 여러가지 뉴스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 속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훈련입니다.